

P2~3

‘시 정보의 다언어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니즈 파악’ 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베(阿部裕行) 시장님 인터뷰 (2022년 8월 8일)

T I C (다마시 국제교류센터) 홍보부 : 다케우치(竹内), 구레(呉), 모가미(最上)

모가미: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마시시장으로서 4기째가 시작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시책에 대해, 외국인의 시정참가도 포함하여 예전과 다른 점이나, 또는 앞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지요?

시장: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바운드로 인해 최근 10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마시로서는, 인바운드 대응의 일환으로 한가지는 Wi-Fi 설치로 외국인들이 손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다마센터역앞 등 Wi-Fi 의 거점 만들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외, 전광게시판 설치도 했고, 코로나 대응으로는 올해 들어 행정 문서나 안내 등을, TIC 의 협조도 얻어서, 7 개 국어(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쉬운 일본어)의 다언어화를 꾀했습니다. 또 태블릿 통역으로는 13 개 언어에 대응하여, 올 6 월부터 도입했고요,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쉬운 일본어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의 아이슬랜드와의 이벤트 기획, 대만의 베드민턴 팀과의 교류 등이 증진된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2020 년 이후는 코로나 재난 대응에 쫓기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 정보의 다언어 번역이나, 재난방지, 쓰레기 분별의 모바일 배터리 등에 대한 주의 기사 게재 등, TIC 의 외국인 대응의 정보제공에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케우치: 시내 외국인의 생활의식이나 니즈와 관련하여, TIC 에는 영어로의 시청 청구 대응을 할 수 없는 등의 불만이나, 위탁사업으로서 TIC 가 맡고 있는 초중학교의 적용 지도에서도 일본어 수업이 35 회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로서는 향후 외국인의 생활의식이나 니즈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장: 향후, 시내 거주외국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등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점, 아이들의 교육 등,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 가겠습니다. 어느 한사람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시책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도 노력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구레: 외국인은 언어문제로 자기쪽에서 제대로 발신하지 못하고, 설사 말을 해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메일 등으로, 영어로의 문의가 가능하다면 상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시장: 예를들면, 쓰레기 분별 문제 등은 일본인 사이에서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겁니다. 그러나 주민세나 고정자산세 등을 납부받고 있으므로, 시로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해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시의 청구는 종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상담 내용에 따라서는 곧바로 회답드릴 수 있는 태세도 아닙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우선은 태블릿 통역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메일로의 대응도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모가미: 다음으로, TIC 의 입장정리라고나 할까, 다른 시,구,마을에서는 우리 TIC 처럼 완전히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고 있지않고, 행정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대응 및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다마시로서도 국제교류사업은 여러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마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을 보다 이해하며, 시와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TIC 의 여러분들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TIC 가 다마시에 존재함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케우치: 동경도(東京都)에는 구(区)나 시(市)의 국제교류협회 등이 모이는 ‘국제교류 단체 연합회’ 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제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도, 시 등의 행정이 관계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와 사무 파트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IC 에서는 사무국이 모든 업무를 하고, 더우나, 예를 들면 일본어 세미나 중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문집, 스피치, 회계 등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즐겁기도 하지만, 역시 방재(防災) 등의 문제에서는 임의 단체인 저희들은 시와 떨어져 있어서, 좀처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립 당초에는, 시(市)가 전문부의 정기 회의 등에 출석해,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제시해 주셨지만, 2005 년부터 모든 것을 TIC 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스태프 확보도 매우 어렵고, 가능하면 사무국장은 시에서 보내주셔서, 자원봉사 스태프와 함께 일하는 형태로 될 수는 없는 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가미: 시장님이 말씀대로, 자원봉사 단체인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도 늘어날 것이고, 그 대응 업무도 많아지면, 자원봉사 스태프만으로는 단체의 존속 그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의 직원도 TIC 안으로 들어와, 운영에 관계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시장: 분명히 지금은 TIC의 여러분들께 안기고 업혀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많은 시 등은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공생, 다이버시티가 당연시 되고 있는 요즘, 다마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 여러 시민 단체가 있으므로 제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다마시의 경우는 자치회의 조직율이 낮아, 외국인들이 지역에서 고립화 되기 쉬운 상황에 있다고 여겨지므로, 시(市)도 서포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4기제 사업으로서, 기후변동 문제 대응과 지역공생 사회의 실현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으니, 지역 직원 담당제 등을 제대로 도입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외국인 대응도 들어 있습니다.

다케우치: 이야기는 바뀐다면, 아이슬랜드와는 우호협력 관계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신지요?

시장: 작년도부터 ‘아이슬랜드 위크’로서 다마 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한 것 외에, ‘유우 사쿠라가오카’로 아이슬랜드 대사를 초대하여,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마 센터에서 아이슬랜드의 사진이나 서적 등을 소개하거나 특산품인 양고기나 유제품인 이세이스킬(isey SKYR/아이슬랜드 요거트)등을 판매하며 교류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모가미: 반대로 아이슬랜드에는 다마시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시장: 아이슬랜드에서도 일본 대사가 정부에 대해서, 다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인구가 34만명으로 적으니, 다마시를 조금이나마 알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양쪽 교육위원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온라인을 통한 교류 등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다케우치: 아이슬랜드와 일본은 화산국으로 온천이 많다든가, 직접 수도꼭지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다든가 하는 공통점도 많으니 친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이슬랜드 대사관 방문도 기회를 보아 실시하고 싶습니다.

구래: 중국에는 공원이라든지 주택단지내 등에 노인들도 간단하게 운동 할 수 있는 건강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마시의 공원 놀이기구는 대부분이 젊은이들용입니다. 노인들도 간단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쥬오’ 공원 등에, 부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다마시에서 건강 놀이기구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도요가오카 미나미’ 공원, ‘쿠타·카이도리 후레아이 히로바’ 공원 등, 전부 9군데 있습니다. 건강 놀이도구 뿐만이 아니라 농구 코트나 아이들도 가능한 ‘록클라이밍’ 시설 등의 요망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각각 특색있는 공원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쥬오’ 공원에 대해서도 인크루시브 공원(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는 공원이나, 잠목품을 그대로 살린 공원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래: 도쿄 내에서도 다마시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저런 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케우치, 구래, 모가미: 오늘은 외국인 대응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TIC의 입장이나,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4. 오피니언

폴란드의 학교

기쿠치 마우고자타(菊地 マウゴジャタ)(폴란드)

안녕하세요. 저의 모국 폴란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매년 6월 20일 전후의 금요일에 학교의 수료식(졸업식)이 거행되는데, 올해는 24일이었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졸업식을 5월에 하고, 6월에는 수료식을 하기도 합니다. 5월~6월에 걸쳐서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성적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1월달에 1학기의 성적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12월, 1월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외의 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웃음)

종료식 날, 선생님과 학생들은 체육관에 모입니다. 체육관은 전날부터 예쁘게 장식되어, 벽에는 여름방학과 관련된 글이나 그림이 붙어 있어요. 식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우아한 복장을 하시고, 학생들은 흰 블라우스에 검정색이나 검색 스커트 또는 바지를 입어요. 폴란드에는 교복이 없답니다. 세레모니의 모두에, 학생 대표(통상 3명)가 교기를 들고 체육관으로 입장하는 동안, 전원 기립하여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에 귀기울입니다. 국가가 연주되고, 교가가 있는 학교는 교가도 연주됩니다.

체육관에서의 식전이 끝나면,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하여, 거기서 선생님과 작별인사를 나누지요.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폴란드 국기(흰색과 빨강색 라인)가 들어간 성적 증명서와 축사가 적힌 책이 수여되고, 보통 학생들에게는, 폴란드 국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수여됩니다.(국기색 라인이 들어간 증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학교나 유치원에 따르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들은, 학년말에 여름방학과 관련된 퍼포먼스나 연극을 합니다. 연극에는, 선생님이나 보호자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료식(졸업식) 후, 학생들은 하교하여, 9월 1일까지 여름방학입니다.

대학생들은, 5 월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6 월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 10 월 1 일까지 쉽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는 닫혀 있고, 선생님들도 쉽니다.(그런데도 불만인 선생님들이 많아요. 폴란드에 비하면, 일본의 선생님들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은 오픈되어 있지만, 수업은 안합니다.

P5.

다마시(多摩市)의 매력을 재발견하다!

주 준화(朱 俊華) 《중국》

올해 3 월말경, 아들이 중국에서 와서 저랑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다마시는 그저 거주하는 곳이고, 조용한 마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매력적인 도시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가 아름다워요. 이미 1 년 이상 살고 있어 다마 센터 주변은 대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특별하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아름다움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온 3 월 26 일 오후, '코코리아'에 쇼핑하러 갔을 때, 코코리아 빌딩 앞에 서서, 「여기야! 와아!」라고 아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어머니! 거기는 애니메이션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속의 한 배경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흥분하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서너군데, 애니메이션 속의 풍경과 동일한 장소를 발견하고는, 크게 흥분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애니메이션 화면을 떠올리고, 길, 다리, 빌딩, 그리고 계단, 나무 등이 어우러진 풍경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어요.

다마의 또 하나의 매력은 음식이 맛있는 점이에요. 어느 날 아들에게 「도쿄에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뭐니?」하고 물었더니, 「음식이 맛있어」라고 대답하여 놀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맛아요, 다마의 음식은 정말로 맛있어요.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도 신선하고 맛있고, 도시락도 여러 종류가 있어, 눈으로도 먹어도 맛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 종류가 바뀌어, 일년내내 질리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혼자 살고 있어서, 늘 간단한 중국 가정 요리를 해먹고 있어서, 음식의 맛있음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공원이예요. '츠루마키 니시(鶴牧西)' 공원은 집 바로 근처여서 이전부터 자주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오고 나서 더욱 즐겁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우선 벌레. 저는 잘 몰랐는데 벌레를 좋아하는 아들은 대단히 흥미로워 하며 금새 벌레들을 발견합니다. 공벌레는 흔하지만, 재미있는 벌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정 나비, 방아깨비 등, 이름 모르는 벌레도 있고요. 맑은 날은, 도마뱀을 보거나, 네 잎 클로버를 찾는 것도 즐거워요. 가까운 공원 어디나 클로버가 있어서, 가면 반드시 네잎 클로버 찾기를 한답니다. 아들은 몇번이나 찾아요. 저는 6 월 25 일 처음으로 네 잎 클로버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들이 온 뒤 다마시의 매력에 많이 눈뜨게 되었어요. 다마시에서의 생활도 앞으로 7 개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즐기려고 합니다.

P6. TIC 전문 동아리 활동소개

일본어 세미나부

대표: 오오타 에미코(太田恵美子)

TIC 가 생기고 30 년.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처음으로 "외국인"을 「본」 것은 중학교 2 학년때 러시아인 여성이었다. 압도 당했다고나 할까... 희고 풍성한 머리카락, 푸른 눈, 높은 코, 당당한 태도..... 사내아이들은 그녀의 풍만한 것가슴에 술렁거렸다. 동북지방의 벽촌에서, 텔레비전도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무렵의 일로서, 소개하는 교감선생님의 상기된 얼굴이 떠오른다. 그로부터 반세기, 세계는 글로벌화 하여, 외국인은 드문 존재가 아니라, 공생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나 자신도 여행지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딸아이가 국제 결혼을 하기도 하여, 이제는 「익숙」 해졌다고나 할까, 되돌아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일본어부문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재빨리 캐치한 시민 유지들이 「다마시 국제 우호 클럽」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본어를 가르친 것이 계기였다고 들었다. 요즈음의 코로나 재난으로 조금 줄기는 했지만, 현재도 90 명의 학습자를 62 명의 자원봉사자(5 월 집계)들이 서포트하고 있다. 나는, 「일본어로 일본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에 끌려 활동을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에 「?」마크가 머리를 맴돌 뿐이고, 게다가, 수업 내용은 학습자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교재에 따라 일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지체가 필요하다. 그래도, 학습자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세계가 흥미진진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선배가, 「자원봉사자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 것(학습자 6 : 자원봉사자 4)」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전달되었나 어땠나 불안하여, 역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아직 「햇병아리」다. 자원봉사자는 각자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도 커서, 솔직히 불안하다. 자신의 역량을 쌓아 가면서도 부담없이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싶지만, 5 개 클래스로 나누어져 렌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수업형태로는, 수업이 끝나면 즉각 퇴실하지 않으면 안되어, 잠담할 장소가 없다. 특히 학습자는, 담당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학습자나 자원봉사자와 접할 기회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예전에는, 「수다 모임」라고 이름붙은 학습자끼리의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들었다.

「교류」란 섞이거나, 다방향 발신이다.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과 카페를 합친 듯한 공간에서, 벽에는 활동 기록이나 교재가 붙어 있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창구, 사무국, 옆방에서는 일본어나 외국어 세미나가 날짜를 바꿔가며 개최되고……. 물건이나 정보가 한군데로 집약되면, 자원봉사자의 교류도 학습자끼리의 만남도 늘어날 것이다. TIC 가 생긴 지 30 년. 다마시에 사는 외국인은 3000 명에 임박하게 되었다. 이제 국제도시에 걸맞은 형태로 시(市)도 본격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시장님, 기대해도 좋습니까?

P7. 일본인의 시선

뛰든지 오케이인 느긋한 라오스 생활

코다마 이쿠코(児玉 郁子)(외국어 세미나 태국어)

무라카미 하루키가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를 출판했을 바로 그 무렵, 남편의 일로 동행한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분명 라오스에는 이렇다 할만한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해질무렵이 되면 메콩강변으로 어슬렁 나와 체조도 하고 시원함을 즐기는 라오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이 나라를 흐르고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리듬이 마음을 점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느긋한 라오스 생활 속에서, 제가 만난 유쾌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얌전하고 조용한 국민성을 가졌지만, 파티에서는 상당히 흥이 많아요. 그 이유 중의 큰 하나는, 여성도 주저없이 술을 마시는 탓이 아닐까, 멋대로 생각해 보는데, 옆나라 태국에 비하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맥주 마시러 갈래!」라는 말을, 여성들끼리 인사 대신 주고 받는 일도 자주 있어요. 파티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은, 즐거운 댄스 시간이 되어요. 우선은, 남녀 짝을 지어 전통 무용(람봉(포크댄스))으로 시작하여, 여성만의 스텝 댄스(바사롭)로 이어집니다. 벽쪽에 붙어 서서 구경이나 하는 여성은 볼 수 없는 것이 라오스 파티의 좋은 점! 그런데, 이 바사롭(스텝댄스)은, 템포는 그리 빠르지않아도 스텝이 무척 어려워요. 「이 춤을 배우면,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이겠군!」 넘치는 의욕에 예술 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눈감잡할 사이에 일본 공연에 참가한 적도 있는 전통무용의 대가에게 레슨까지 받게 되었으니, 어머니 큰일났다! 근육통을 앓아가며 겨우 몇곡 춤출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선생님께 「좀처럼 춤출 기회가 없어요…」라고 하소연하자, 「그럼, 다음 달, 이 학교에서 직원 결혼식이 있으니 참가하면 되겠군요. 그때 연습한 성과를 보여주세요.」 「어머니 선생님, 춤추고 싶다고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안돼요!」라고 거절했지만, 「나와 함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라고 하시더군요. 라오스에서는,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 놀랐어요.

상대방의 사소한 요망을 기꺼이 받아주는 품넓은 마음. 라오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뛰든지 다 있는」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P8.

TIC 의 활동

- 3/27 봄 산책, 꽃구경 교류회 5/28 제 18 회 TIC 정기 총회
- 8/7 VITA 후레아이 축제, 외국어로 인사하기 「인도네시아어 · 태국어」
- 7/29~8/31 외국어 하기 강좌 「스페인어」 일본의 시가(詩歌) 9/11 국제이해 강좌 (미얀마)

【 편집후기 】 10 월에 들어서면 단숨에 가을다워 집니다. 올해도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태풍도 아직 몇 개 더 일본에 상륙하겠지요. 세계를 돌아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도 아직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곤란에 부딪히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은 힘껏 노력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SDGs 의 17 개 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꿈같은 목표이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나마 실행해 갑시다.

타마시 국제교류센터 (TIC)

우편번호 206-0011 타마시 세키도 4-72 비타 커뮤니 7 층 전화:042-355-2118 팩스:042-355-2104

발행: 홍보부 대표: 모가미 츠토무 편집: 다케우치 카요코 한국어 번역: 이화순 2022년 10월 10일 발행

*당 회보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또, 본 회보는 별도로 한국어판과 중국어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의 연락처로 연락주시요.